

東大新聞

1997년 (월간 2541년) 9월 29일 (월요일) 제 1231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택섭 / 부주간 고장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 (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가주이언
김기영

깊이 생각하여 방탕하거나 인입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인(仁)을 행하며 인의 자취를 배우면 이로 인해 근심이 없으니 항상 마음에 새겨 자신의 욕심을 없애라. (법구경·교학품 28절)

'98 입시 대학이 간다

전국 8개 지방에서 원서접수 및 논술·면접고사 실시...전국 최초

본교가 전국최초로 '98학년도 입시전형을 지방 8개 도시에서 나눠 실시하는 새로운 전형방법을 발표해 지방수험생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측은 지방수험생들의 상황에 따른 고충과 관련해 "작년 서울소재 대학들과 연대한 지방 공동접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으며, 본교지원 지방학생들의 통계를 감안할 때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실시배경을 밝혔다.

이번 새로운 입시전형은 대학 입시 때마다 대두되는 사회적 문

제, 즉 장시간의 이동과 낮은 환경 등으로 수험생이 겪는 불편·불편과 함께 숙박시설, 바가지 상의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작년의 경우 지방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30%나 차지한 본교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지역 및 지역별 고사장의 위치는 8개 권역으로, '98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지방공동접수 지역과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지리·교통 조건 및 인지도 등의 요인이 고사장의 선택기준이 됐다. 방문지역 및 고사장의 위치

는 △대전·충남=대전소재 보문고 △충북=청주소재 청주상고 △부산·경남=부산소재의 경남상고 △광주·전남=광주소재의 광덕고 △전북=전주소재 전주능고 △제주=제주소재 오현고 △강원=강릉 소재 강릉상고 △대구·경북=대구소재 대구여고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사장 시설 임대료, 이동비, 인건비로 크게 나뉘는데 이동비에는 교수, 직원, 현직교사, 아르바이트 등 연인원 2백여명이 필요하다. 학교측이 부담하는 총예산은 약 1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수험생이 기존대로 서울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파생되는 가계 총비용 12억원이 절약돼 사회적·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실시되는 것인만큼 본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수험생의 부담해소, 편의 도모 등을 위한 제도로 대학입학전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학과 결정 20일부터 정원 1백 50%까지 성적순 배정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2개 학기 이수자는 성적비교시 편점에 관계없이 3개 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하며, 취득학점까지 동일한 경우 동순위로 처리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교부 받은 신청카드(OMR카드)를 작성해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를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임의 배정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배정기준인 1백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본인의 지망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2개 학기 이수자는 성적비교시 편점에 관계없이 3개 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하며, 취득학점까지 동일한 경우 동순위로 처리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교부 받은 신청카드(OMR카드)를 작성해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를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임의 배정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리소

대통령의 종교

정병조 (로과대 인문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1997년 문화체육부의 한국종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교 1천 30만, 개신교 8백 70만, 가톨릭 2백 90만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세종교가 한국사회의 주축이라는 점은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보아 종교의 영역은 세속적이거나 보다는 초월적이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인간의 철학적 특성을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누구나 풀실의 이슬처럼 무상(無常)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영원을 회구하고, 초월을 갈망한다.

종교는 그와같이 인간육구에 대한 '응답(應答)'인 셈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온통 종교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태도는 무모하며 무의미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광야의 선각자를 자처하는 풍토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기준으로만 상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종교간의 우열을 따지는 전근대적 발상보다는 제각기의 종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그를 위해서 가치가 필요한 것은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열린 시각'이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를 갖느냐는 정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자신의 신앙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를 가진 이도, 갖지 않은 이도 살 권리가 있는 대제이기 때문이다. 요즘도 김대통령은 청와대 식사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양이다.

예수 인민은 사람으로서의 편이나 불편한 시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요즘 대선후보 다섯명은 저마다 대권을 향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계개편이니, 보수대연합이니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두 명은 가톨릭, 한명은 개신교, 둘은 종교를 밝히지 않고 있다. 누가 되건간에 타종교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해박한 국망, 외교전략보다 시급한 것은 편견없는 종교관이 아닐까.

'97 공인회계사 10명 최종합격

'97 공인회계사 3차 최종시험에 본교 졸업생 10명이 합격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종영(회계졸) 고병열(회계졸) 이학진(회계졸) 장세용(회계졸) 김영선(회계졸) 박홍식(회계졸) 김양부(경영졸) 고한용(경영졸) 김시관(경영졸) 송효길(경주회계졸) 이상 10명

송석구총장 일본방문 '불교철학계대학회'의 참가

본교 송석구 총장(철학)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4회 불교철학계대학회'의 참가 목적으로 일본 고마자와 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송석구 총장은 '한국 불교계 대학이 지향하는 대학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으며 강연석상에서 '동아시아 불교계 대학 협의체'를 제안, 곧바로 '한·일간 협의체'가 구성됐다. (관련기사 7면)

중앙도서관 모범이용·봉사자 시상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본교 재학생 4명에게 모범이용상과 봉사상을 오늘(29일) 10시에 총장실에서 시상한다.

지난 한 학기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 중 서적 이용 실적을 토대로 모범 이용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모범이용상=박종호(불교2), 나한식(반도체4) △봉사상=김영택(화학3), 조신선(회계2)



지난 11일 '총장과 학생과의 간담회'가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총장의 간단한 강연과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오인택 기자

교수회, 지난19일 대의원대회개최 97학년도 1학기 교수임용문제논의

교수회(회장=김기영·사회학)는 지난 1학기에 4개학과 교수임용에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무처장, 해당 학과장,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9일 본교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회는 미술학과, 사회학과, 국어교육과, 연극영화과의 신규교수 임용문제를 안건으로 △해당 학과장의 발언 △교무처장의 경우 설명과 대의원회의 질의 △교수총원제도 변경 및 보완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1학기에 발생한 4개학과의 교수임용 문제의 추후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고 교수총원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교원위원회에서는 현행 교수임용 제도를 연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7차 대의원회에서 재론할 것과 대의원회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전체 교수들에게 알리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교수회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2차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입학은 경주에서 졸업은 서울에서? 한의대 '서울로 보내달라'는 목소리 높아 학생회측 경주캠 전체 발전 고려해야

한의대 상경문제가 한의대학생회(회장=송용훈·본1)측이 지난 11일 학교측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한의대생들은 지난 78년 한의대가 경주캠에 설립된 이후 88년부터 4학년이 상경하기 시작하여 현재 본과 3·4학년은 서울캠에서 예과 1·2학년을 비롯한 본과 1·2학년은 경주캠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경주캠 학생회측은 △교육환경의 지역적 고립성 △분과 분리로 인한 학문의 유기적 연계의 어려움 △우수 인재확보와 우수 교수영입의 어려움 등을 들어 지난 85년 이후로 예과 2 및 본과3·4학년의 순차적인 서울상경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한의대 정학년이 서울로 옮겨지는 것은 교육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서울캠의 공간도 부족한 상황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까닭은 지난 11일 학생회측이 공개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내 19일까지 '한의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회측이 요구한 시일(지난 19일)까지 학교측의 답변이 없자, 학생회측은 지난 19일 전학년 모임을 가진 뒤 서울캠으로 올라가 '학교당국의 한의대 발전 정책 부재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김병기 부총장이 "별을 안으로 경주캠 명의로 공문을 보내어 총장을 비롯한 학교측 관계자와 학생회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항의 집회는 취소되었다.

현재 학교측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비롯한 상경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오는 10월 20일경에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밝힐 전망이다. 한의대 학생회측은 2학기 사업을 '상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구성해 이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 열릴 회의 결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경문제를 바라보는 학내 일반적인 시각은 "한의대가 경주캠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한의대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상경간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한의대 이전으로 인해 경주캠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해경 기자

교수동정

- ▲박정국(화학공학)=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ESACT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차 프랑스 파리 방문.
- ▲염기영(법학)=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국제학술회의 사회 및 논문 발표차 독일 함부르크대학 방문.
- ▲김영민(영문학)·황순성(영문학)=지난 26일부터 오늘(29일)까지 IASIL-JAPAN 세미나 발표차 일본 도쿄 방문.
- ▲이덕성(사회체육학)·정길상(사회체육학)=오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사회시설건축 및 학술조사차 스쿠바 대학 방문.

동대신문 기획광고

이 가을, 당신의 손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의 양식을
건네 보세요

동대신문사

명진학술문화제 1일까지 강연·노래자랑 등

문과대 학생회(회장=유재하·국문4)는 오늘(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늘 푸른 청춘, 청춘은 빛나게 살자'라는 모토 아래 '97명진 학술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일정은 △29일=명진관 앞에서 12시 개막식, 오후 6시 '베드 캠프'라는 주제로 강경구 교수의 강연회(A104) △30일=오후 5시 '영화 선택과 바로 보기'라는 내용의 유지나 교수의 강연(A104), 7시 노래가사 바꾸기, 가요, 민중 가요 등을 내용으로 한 명진 노래 자랑(명진관 앞) △10월 1일=체육대회 결승 및 5시 폐막제(명진관 앞)로 진행된다.

공대 체전 오는 1일 삼미특강 기금미련 행사도

지난 19일 구성된 공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한재규·로복공4 이하 비대위)는 10월 1일부터 원흥대동계 기획사업으로 체육대회와 기금미련 행사를 개최한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인 원흥대동계에 앞서, 이번 행사는 공대 농구장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구, 족구, 단체출발기 등의 체육대회와 삼미특수강 노동자 지원 기금미련을 위해 바둑·장기대회 등이 실시된다.

사범대학학제전 오늘부터 족구·제기차기 등

사범대 학생회(회장=김지희·역교4)에서는 오늘(29일)부터 학제전을 시작한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인 학제전에 앞서 시작되는 이번 체전은 △남학생=족구, 농구 △여학생=피구, 발야구의 종목이 실시된다. 또한 행사기간동안 배드민턴, 제기차기, 팽차기 등의 경기도 상설마당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중 '남산골 한마당' 족구 피구 등 경기

아간강과 총학생회(회장=김선문·경영4)는 한밤의 노래자랑, 체육대회, 사회전을 내용으로 한 '남산골 한마당'을 지난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22일부터 예선을 벌여온 체육대회는 농구, 축구, 족구를 종목으로 하며 10월 2일 결승전을 치른다.

행사 마지막날인 10월 2일 5시 30분에는 동국관 앞에서 한밤의 노래자랑, 문예단 공연, 각종 행사 시상식 등의 본마당이 이어진다.

“면접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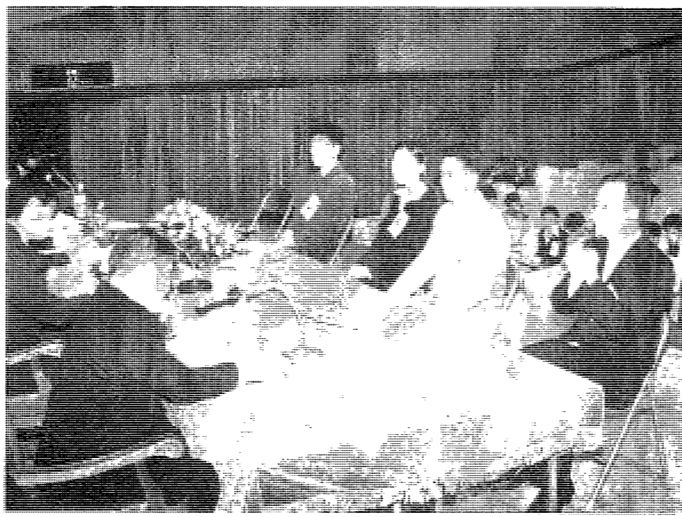
‘취업특강 및 모의면접’ 예년보다 높은 관심...지속적인 행사 필요

‘취업특강 및 실전 모의면접’이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과 주최로 6백여명의 참여 속에서 지난 25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오전행사로 매경취업뉴스의 장재성 국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디플로머시 임덕규 회장 동문을 비롯한 10명의 재직 동문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모의면접이 치러졌다.

김병수 취업과 과장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아직도 학생들이 면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수반될 모의 면접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면접대상자로 참여한 유승민(응생4)양은 “면접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모의면접을 경험해



보니 면접에 많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재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취업과는 현재 재학생들이 취업관련 정보탐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남·녀 휴게실과 본관 취업자료실, 해화관에 검색과 점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컴퓨터 4대를 오는 11월 이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과대 오늘부터 한총련 탈퇴관련 총투표

오는 2일 결과 발표 및 자유발언대회 개최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왕재·사회4)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사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개진 운동’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총 2백52명의 사과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운동은 필요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면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60% 이상이 ‘한총련 불탈퇴·탈퇴와 이후 사과대 학생회의 행보’에 대한 총투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과대 학생회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투표는 오늘(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관 3층 로비에서 사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 내용은 ‘불탈퇴를 통한 한총련 강화’, ‘탈퇴 후 한총련 내 부활’, ‘탈퇴 후 사과대 학생회 독자행보’, ‘탈퇴 후 새로운 연대

질서모색’ 등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에는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학생운동 혁신 과제 제안과 토론을 위한 자유발언대회’가 오후 1시에 동국관 앞에서 진행된다.

토론안건은 ‘현 학생운동의 위기진단’, ‘이후 사과대 학생회의 중심적 활동내용과 과제’, ‘학생운동의 구체적 혁신과제’ 등으로 타

단과대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학생들의 바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총련 탈퇴, 불탈퇴가 아니라 이후 사과대 학생회의 행보와 학생운동의 나아가길에 대해 일반학생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검거 비대위장 위기모면

지난 9일 동국문화회 손흥규군 연행·구속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교 비상대책위원장인 유재하(문과대 학생회장·국문4)군이 지난 19일 학교내에서 사복차림을 한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의해 강제 연행된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경위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문과대 앞으로 가던 유재하 비상대책위원에게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두명의 남자가 나타나 강제

로 연행, 미리 대기해 있던 승용차에 태워러 했던 것이다. 다행히 비대위장은 주위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모면했고, 그 승용차를 추적했지만 놓치고 말았다.

한편 지난 9일에는 동국문화회 손흥규(국문3)군이 보안수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중이며, 작년 전국대학생 문화연합의 정을 맡아 활동하던 것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 임기중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학교발전 ... 현 시기는 도약 단계 내실있는 행정 병행해야

대학이 변하고 있다. 얼마전 정보매체센터를 기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석좌교수제·겸임교수제 등 실시로 우수한 교수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실장=임기중·국어국문학) 실장을 만나보았다.

- 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 학교의 발전 방향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시설 확충이며 다른 하나는 인적자원의 육성이다. 이 때문에 학교는 건물을 확충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제도 등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대학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한다면.
= 이미 알려진 제3캠퍼스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중이고 정보매체 센터가 건립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간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모습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학교가 발전 하기 위해서는 학내 3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수들이 선두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교수가 변화야 하는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 단지 강의실에 안주만 한다면 안된다. 연구·사회봉사·교육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교수직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를 실시해 교수들의 연구열도 높일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우수교수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학교발전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건립될 제 3캠퍼스에 대해 말한다면.
= 제 3캠퍼스는 단순한 이전이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열의를 가지고 설립하는 산·공·학 협력으로 건설되는 캠퍼스다. 또한 집체되어 있는 자연과학 계열의 특성화를 위해 설립하며 초일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계열의 특성화를 이를 예정이

- 학교 발전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 10만동문을 위시한 거대한 동국이라는 배가 이제 출발을 하려하는 것이다. 일정 항로에 들어서기까지 말이다. 그때까지 학내 3주체 뿐만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중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앞으로 발전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재학생들의 제안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0년안에 3대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

이태훈 기자

회전무대

아버지와 아들

O...살 빠지는 외로운 후보 이회창?

요즘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당의 분열, 후보교체론 등으로 하루 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더구나 몇 달째 지지율이 재지리를 맴돌고 있어 당내에 확산되고 있는 대선 패배 위기감 등으로 더욱 교성(?)을 하고 있다고.

이에 이회창의 몸이 많이 허약해진 것을 느끼는 본 회전무대자 왈, “부전자전이 아니라 자전부전이네!!!”

옛 명성

O...옛것이 그리운 사람은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로(?)

물이 귀하고, 비단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등 60년대 풍경이 그곳에서 재현되고 있다는데.

물이 안나오는 세면대, 배수구에 금이가 바닥으로 물이 새는 세면대 등 시설물들이 모두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이에 한 여학생 왈, “90년대에 60년대 분위기의 화장실, 동국 대학교가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증거?”

비상 기류

O...요즈음 구름 위에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데.

국민의 기대속에 생선된 한국형 전투기(KF-16)가 한달 사이에 두 대나 추락했다고.

한편 공군은 KF-16기의 추락원인이 미국의 부품과 삼성의 조립 중 어느 것이 문제인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혼신상태에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구름 위로 비행기가 비상(非常)하니 땅 위에서 공군이 비상(非常)(?)”

대학인의 지성(?)

O...“밤 새지 말라 말아야” 동학에 조성된 여러 휴식공간들 중 그 시설이 단연 돋보이는 동국관 5층 휴게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금연 및 음주수 반입금지 잘 지켜져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휴식을 너무 깊게 취한 나머지(?) 의자에 드러눕는 학생들이 있어 휴게실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깨어나라! 지성이여”

동약에서 동약으로 달리는 동국인 '97 백상예술제전 19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

- 대상: 전 동국인 (학생, 대학원생, 교수님, 교직원)
- 일시: 10월 10일 3시 도서관 앞 출발
- 코스: 정문-남산순환도로-서울예전앞-퇴계로-중문-도서관 앞
- 참가방법: 단체 20인이상 (과, 동아리, 소모임, 동문회 등)
- 접수: 10월 9,10일 양일간 총학생회실에서 접수합니다. (개인 접수:당일 접수 및 참가)
- 시상: 단체 1등, 2등
개인 1등, 2등, 3등(남녀각각)
11등(전대협 한총련 11년상)
29등(29대 총학생회상)
91등(91주년 기념상)
- 축구 9월 23일~10월 10일,
농구 9월 30일~10월 10일,
족구 9월 29일~10월 10일
운동장, 공대운동장, 만해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제29대 총학생회

졸업앨범 표지 디자인 공모

학우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TEL.26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내용: 졸업앨범 표지 디자인
- 공모대상: 본교 재학생
- 공모기간: 10월 10일까지
- 공모방법: 만든 작품(규격과 색상 제한 없음)은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봉투에 넣어 졸업준비위원회(학생회관 1층)로 제출
- 시상내용: 1등-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등-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등-도서상품권 5매
참가상-도서상품권 1매
- 시상: 10월 중 공고 및 개인 통보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실시

최근 기업의 채용전형기준을 보면 능력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인적성검사가 기존의 채용시험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인적성검사를 채용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인적성검사는 취업의 필수요소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종류: 리쿠르트 직무적성검사
2. 접수일자: 9.29(월) - 10월 8일(수)
3. 검사일자: 10월 10일(금) 오후 2시-5시
4. 검사장소: 추후통보
5. 비 용: 3,000원(학생부담)
검사해석 및 상담: 무료

* 인적성검사관련 특강과 질의응답시간이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본관 2층 학생생활연구소 (구내전화 3506)

학생생활연구소

자기성장프로그램

본 연구소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자신 발견에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인격을 성숙시키고, 대학생활에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기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시일자: 10월 7일(화)~11월 25일(화)
2. 접수일자: 9월 29일(월)~10월 6일(월)
3. 대 상: 학부 또는 대학원생(선착순 10명)
4. 실시장소: 학생회관 연회관
5. 진 행: 이지현(학생생활연구소 객원상담원)

* 원할 경우 MBTI성격유형검사 및 해석을 해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 본관 2층 학생생활연구소 (구내전화 3506)

학생생활연구소 전화 및 PC통신 상담 실시

- ☐ 직접 학생생활연구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전화 및 PC통신을 이용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 ☐ 전화 : 260-8996, 8997, 8998
- ☐ PC통신 : Dgucc.Dongguk.Ac.Kr
-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누구나 환영합니다.

학생생활연구소

국책사업 효율·체계적이어야 한다

경부고속전철·교통·통신사업 등 첩첩산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대개 나름대로의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책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 두해가 아니고 삼사년, 길게는 십여년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잘못 추진되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예산낭비와 회생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은 주관부처와는 별도로 관련부처나 기관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수많은 협의와 의견 조정이 따르게 되며 때로는 여기저기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책사업은 그래서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근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을 보면 도대체 계획성과 효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니

다. 교통, 통신사업분야도 그러하고 항만 건설, 전략적 사업의 지정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건설 사업은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갑작스럽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누더기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당초 발표에는 2년이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시간 반만에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국민을 벅찬 기대에 부풀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21세기부터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처럼 드디어 고속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런 기대와 희망은 지금 실망과 회의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워낙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비용도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몇 배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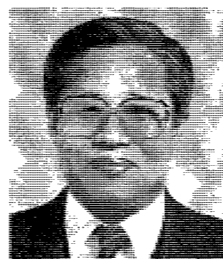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주문된 차량이 만들어져 있고 완공시기도 2002년으로 연기되는가 했더니 2006년으로 재연기되었으며 사업비는 과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노선에 대한 정책대안분석을 소홀히 한 것이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이과같이 누더기로 만든 근본적 원인이다. 그리고 설계도도 완성하지 않은 제작공부터 하고 본 무모함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집행의지가 결여된 것도 부실공사를 낳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도대체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야 여기저기 노선이 바뀌고, 주민반대 있어도 역시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니 어떻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경주 흥과 노선의 경우 노선변경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문화체육부의 의견대립과 다툼이 그렇게 치열했는데도 대통령이 뒷집만 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불어지는데도

시사논단



김영중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하나없는데 어떻게 철도 건설되기를 바라겠는가. 지금이라도 고속전철사업에 관여하는 정책당국이나 사업시행자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건설한 경부고속도로건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 당시에만 허더리도 사업계획은 상당히 치밀하였으나 노선도 대안분석 후 일단 선택이 되고 나서는 변경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헬리콥터를 타고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돌러하였다.

민족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주요 정책과 행에서 30년전보다도 계획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저 한심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사설

명실상부한 열린대학으로 자리매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온 후 가을 하늘은 더욱더 높아만 간다. 누구나 풍요를 느끼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지만 교수수업들은 이를 느낄 여유도 없이 입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가장 커다란 부담은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인데 틀림없이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지방수험생들에게는 면접과 논술고사를 치르는 당일 숙박과 교통 문제까지 정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본교를 지방하는 지방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와 시험을 위해 일부러 상경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본교에서 전국 최초로 98학년도 신입생의 입시전형부터 서울과 전국 8개 도시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골격을 보면 전국의 8개 지역에 지리, 교통, 인지도 등을 고려해 고사장을 선정하며 교수, 직원, 현직교사를 활용해 원서접수를 하고 다

음날 오전에는 논술고사, 오후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입시를 치를 경우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입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과 지리적 생소함으로 겪을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미 '참사랑 열린교육'을 기조로 하는 본교의 교육개혁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교는 이에 머물지 않고 지역인사전형 도입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여 '열린대학'의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더이상 앉아서 학생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학생수의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학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의 지역인사전형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해 대학입학전형의 모범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황성공원 살리기

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문제 난항

반대여론 외면하는 시정 부지변경등 공원살리는 방법 모색해야

천 년 고도의 도시인 경주시가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로 본교 교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6년 문화엑스포기념 사업과 관련해 시측은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롯 시민의 심신건강을 위한 체육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연합단체 및 학계에서는 공원조성에 따른 후유증과 막대한 문화가치 훼손을 이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체육관 건물은 20%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며, 기타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설진행 중에 있다. 시민단체 및 여러 재야 단체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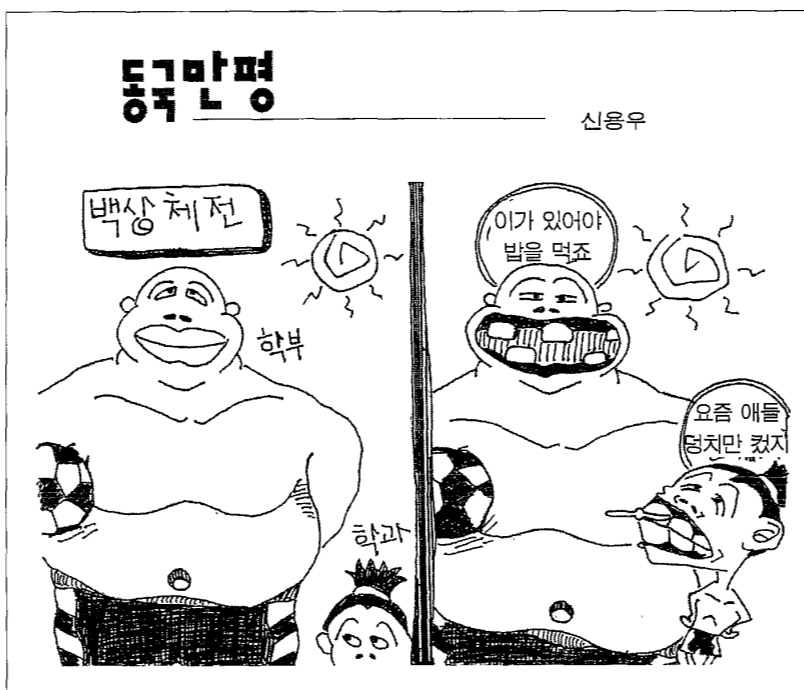
실내체육관 건립반대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시민의 공간인 공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

하는거나 마찬가지이다. 황성공원은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황성공원 체육관 건립문제는 시민의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수위에 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성공원과 관련 본교 교수들이 이 운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반대서명운동과 입장표명에 이르기까지 황성공원살리기에 앞장 서고 있다.

황성공원 보존과 관련해 본교 지역정책 연구소 소장인 임배근 교수(경제학)는 "실내체육관을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장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시외곽의 어느곳이든 건립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황성공원에 짓는다는 것에 반대할 뿐이다.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시민단체 및 학계와는 달리 시측



은 황성공원의 질적인 개발을 위해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라는 단원인 경우에 제대로 갖춰진 체육관이 없어 체육관 건립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황성공원을 살리자는 본교 교수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여론수렴의 과정에 공청회 개최를 시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발전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황성공원내 체육관건립 반대운동을 펴는 지금도 황성공원내 체육관은 지어지고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지역이기주의에 앞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듯하다.

조선신 기자

황성공원 살려야 한다

지역과 대학간의 연계성은 중요하다. 그러한 취지로 얼마 전 본교 서울캠과 서울특별시 중구청과의 '정보·문화 교류 협약'은 실로 반갑단 한 일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란 구차한 수식어를 달지 않더라도 매우 크다.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은 서울캠만의 현상은 아니다. 경주캠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고자 지난 학기에 기존 영남개발연구소를 지역정책연구소로 개편하여 지역 사회와 교류의 물고를 텄다.

논의된 작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황성공원 살리기' 운동일 것이다. 이는 경주시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행정착용을 바로 잡아보려는 대학의 움직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러한 움직임에 경주 시민 단체들도 뜻을 같이 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 이 더 크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장에서 정작 경주시가 대학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지역 거주자들의 작은 실의를

행겨주고 그에 대한 뉘그러물을 비한다면 더욱 용서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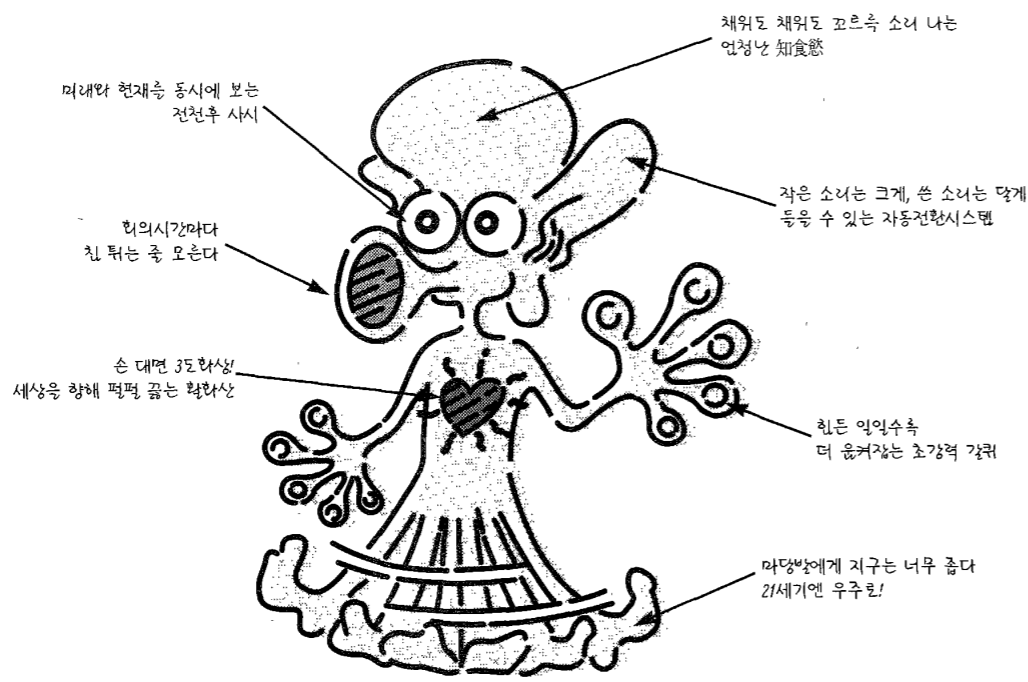
경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실내 체육관과 각종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란 구차한 수식어를 달지 않더라도 매우 크다. 더구나 그러한 실수를 지적하는 우리의 스승과 시민들에게 지질스러운 협박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당국의 작태는 분노마저 느낀다.

경주가 '역사 문화의 도시'라는 사실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지도 높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문명의 이기심으로 황성원에 황성공원을 살리는 것은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기에 이제 우리는 침묵을 깨야만 한다. 또한 경주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인지를 통찰해야 할 것이고, 대학의 가르침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야만 할 것이다. 황성공원을 되살리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모여라 優主人!

한화의 21세기 주인이 될 우수인재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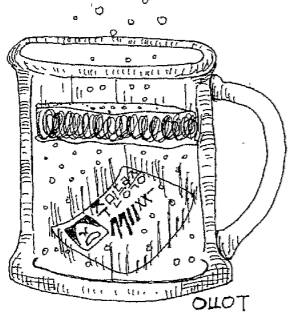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 원: 450
시공 개발 분야: 인 원: 100
영업 분야: 인 원: 100
기술 분야: 인 원: 100
관리 분야: 인 원: 100
기타: 인 원: 50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한 개별 통지함)

3.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에 따라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학사 취득한 자로서는
1999년 2월 취득예정자
나. 공문 또는 공면제자
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4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3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시 제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석사취득

동약로



만 20세

대학가 어느 술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처럼 B호프에서도 학생들이 흥겹게 떠들고 있다. 잔을 부딪히고, 담소하는 광경들이 여느 술집분위기를 그대로 자아낸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으로 인해 바쁘게 움직이는 주인, 그리고 술 마시는 학생들.

하지만 잠시 후, 학생들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저... 학생 신분증 좀 줘봐!" 옆에 주인을 대동하고 나타난 낯선 사내. 아무 이유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주인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건네라는 양해를 구한다. 호프집의 분위기는 살얼음을 걷는 듯 하다.

학생들의 눈에 비친 주인의 눈빛은 애처롭기만 한데, 옆에서 결연히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주인에게 형사는 "니가 밑에 감히 형사가 보고 있는 신분증에 손을 대? 니가 뭐야?" 면박까지 준다.

"학생 말야. 77년 11월 생이야. 오늘이 9월 23일이니까 학생은 미성년자라구. 이리해서 술마시면 압소가 법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고, 주인이 잘못된 일이나, 뭐," 이리인해 그 호프주인은 4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학생들 또한 불쾌한 기분으로 그 날의 분위기를 망치고 말았다.

본교생들이 대부분인 학교 근처 술집. 입학식 전부터 선배들에게 이플려 술집을 다니는 현실에서 이와같은 상황은 청소년 보호법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조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3학년초가 될 즈음만 20세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1, 2학년때 학교 근처 술집에 못들어 가지는 않았다.

'성년의 날'이란 것이 있다. 올해의 경우는 77년 생들이 그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축하를 하면서 어른을 향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그런데 과연 이들 중 달이 모자라 축하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도 있었을까? 최정식 기자

민가협 목요일 2백회



지난 25일 열린 민가협 2백회 특집 목요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목요일 2백회 맞이... 참다운 정의와 인권 실현의 날까지 멈추지 않을 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이하 민가협)는 지난 2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2백회 특집 목요일 집회를 가졌다.

지난 93년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펼쳐진 민가협의 목요일 집회는 이번 집회로 2백회를 맞이했다.

5, 6공화국 당시 구속된 9백명의 양심수, 문민정부 아래 약법과 공권력의 남용으로 구속된 3천 8백여명의 양심수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현실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목요일 집회는 한국의 현실을 비추주는 인권집회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번 집회는 입수경씨의 사회로 △노래 패 꽃다지의 노래 △국제인권단체에서 보내온 2백회 목요일 축하 및 메시지 낭독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의 개회사 △85년 구미유학생사건으로 구속된 김성만씨의 어머니 최인화씨의 '어머니의 소원'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무기수 손병선씨의 외손자 임동선군의 '양심수 자녀들의 소원'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의 '양심수 석방 촉구 연설' △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신인영씨의 어머니 고병희씨의 '어머니의 소원' △무기수 박노해 시인의 육중시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 낭송과 가극단 금강의 노래 △민가협 박용길 공동의장의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양심수 석방 촉구 서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는 그날까지 보릿밭 수건을 쓴 어머니들의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양심수 촉구 연설'에서 "5, 6공 시대에 구속된 9백여명의 양심수들은 0.75% 남짓한 감방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전·노 사면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했다.

지난 6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31년째 수감중인 신인영씨의 어머니 고병희씨는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인 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집회에 참여해 "지난 30년간 매달 면회를 간게 벌써 3백번이 넘고 지금은 건강이 좋지않아 아들을 보러 가기도 힘들다"며 "생전에 아들을 위해 밥 한 번 지어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집회, 국제 엠네스티 로스 다니엘스 집행위원장 등 국제인권운동가와 함께한 연대집회, 가수, 시인 배우 등이 참여한 거리음악제, 전·노 사면저지 캠페인 등 다양한 형식의 목요일집회가 어느덧 2백회까지 왔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보릿밭 수건을 쓴 5·60대의 민가협 어머니들은 우리 사회에 참다운 정의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날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인택 기자

한총련 투쟁국장 검거 도중 사망

단순 추락사 보도불구 고개든 의문점...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필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권한 대명 = 유영인·목포대 총학생회장)단위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7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던 김준배(27·광주대 93졸) 한총련 투쟁국장이 9월 16일 0시 10분께 20여명의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의 검거 도중 사망했다.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가 추락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13층 아래로 떨어져 전년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대학후배인 전모(25)씨가 사는 이 아파트에 숨어 지내 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들어다치자 배

란다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TV선을 타고 달아나다 변을 당했다'고 단순 추락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은 △1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 3개만 부러졌다는 점 △1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도 추락사했다는 지점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점 △1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도 1층과 2층 사이의 복도에 핏자국이 흥건할 정도 흘러있었다는 점 △13층에서부터 복도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있었던 점 △복도 곳곳과 1층과 2층사이의 핏자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에 의해서가 아닌 김준배 학우의 아버님에 의해 열흔이 채워져 조사를 한다는 점 △1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도 119 구급차에 동승했던 형사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점 등의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총련은 지난 20일 전남대 병원 영안실 앞에서 고 김준배 학우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학생 릴레이대회를 갖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인탄압 분쇄를 주장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1. 총론
2. '미디어 정치' 이렇게 지리 짚어야 한다.
3.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4. 동대생이 보는 대선
5. 대선의 구도와 윤곽
6.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대선주자들의 경제난국 타개책 무엇인가

재벌 기업들이 연해 도산하고 금융·외환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 경제실정은 총체적인 과국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자율화와 개방으로 지금의 경제정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감만 쌓여간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서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후보마다 대선캠프, 자문단을 두어 공약으로 확정짓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신한 국당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경쟁의 제고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는다.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후 경제정책의 기초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과 민간주도의 자유경제 구현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식·기술 집약적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정책에서는 금융시장위기의 타개책을 정부의 적극 지원에서 찾고 있어 노선이 불투명한 절충주의로 보여 현정부의 경제논리를 답습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정치와 경제를 함께 개혁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의 신봉자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전망이다.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중소기업진흥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벌들의 분야별 경영에서 벗어나 업종전 분야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고효율 기업구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한다. 특히 21세기 기간산업인 정보산업에 중점적, 체계적 개선을 내놓았다.

자민련 김종필 후보의 경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실명제 폐지론이다. 졸속한 금융실명제실시가 투자 및 저축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주도의 물가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리, 물가, 임금, 지가 등 생산비용을 절감해 상품가격 경쟁력 확보, 경영쇄신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은 업종전문화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강력추진, 고유 기술 개발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정치강화를 주장한다.

민주당 조순 후보는 서울대 경제학교수,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대중 후보와 함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조후보는 우선 시급한 단기과제로 물가안정, 중기과제로 금융개혁, 장기과제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인력시장의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실명예금인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수 있도록 과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경제회생의 출발점으로 잘못된 금융개혁의 현 정부내 추진 중단, 금융자율화를 통한 저금리 실현등 금융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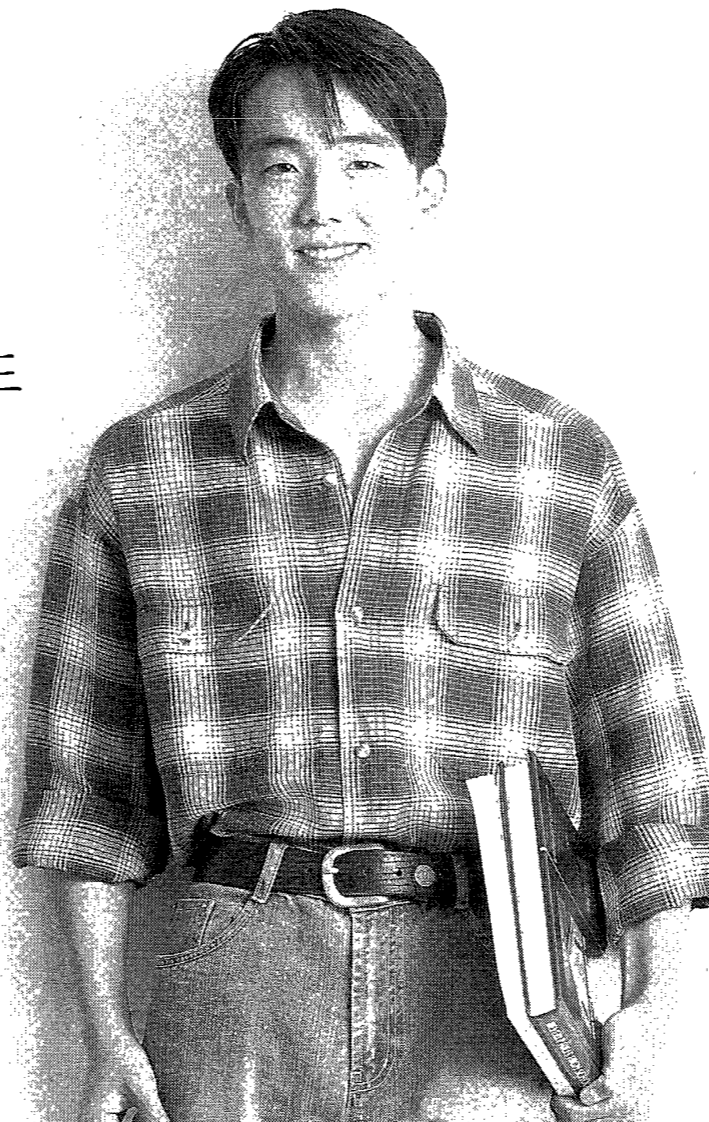
국가경제의 마지막 하든 카드인 대선 후보들의 경제전략. 21세기 선진화로 발돋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대선에 달렸다. 비록 대선후보들이 단순 득표전략으로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을 내세울 수 있지만 정말로 현명한 경제정책만이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사회부

정보통신이 빠른 나라 - 스피드 코리아



처음 시작한 날도, 한달에 한번 그날도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 가입할 때의 가입보증금 부담이나 매달 한번씩 날아오는 요금청구서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이동전화! 하지만 이제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부담도 없고 기본요금도 1만원이면 되니까 걱정없어요.



스피드011 - 이제 부담없이 가입하고 부담없이 쓰십시오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20만원이 필요없습니다

가입보증금 20만원을 보증보험료 2만원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SK텔레콤 전국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스피드011 신규가입시 모든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자동차납부 신청용 통장을 지참해 주십시오.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증보험 이용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 보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요금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대신 종전대로 2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기본요금 1만원의 SAVE요금에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료를 기존 일반요금의 절반 수준인 월 1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요금 할인시 최고 50%까지 할인되는 SAVE요금제를 신설하여 하루 2~3통화 정도의 소량 이용 고객의 요금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 통화는 65초 기준임)

- 기본요금: 10,000원
- 통화요금: 10초당 42원(비할인/할인시간)
- 요금할인 적용시간: 평일·토요일(21시~익일08시), 공휴일(전일)

- 고객센터(이용시간 08:00~22:00) : 서울(02-8988-011, 012) 부산(051-8181-011, 012) 대구(053-4242-011, 012) 광주(062-5104-011, 012) 대전(042-2299-011, 012) 안동(054-2299-011, 012) *총회(0431)2799-011, 012
- 강북(0371)4556-011, 012 *지역(064)439-011, 012 *24시간 통화센터 http://www.sktelecom.com
- NETSSO 홈페이지 http://www.netssg.com *PC통신(에이텔,코리아넷,나우누리,유티넷) GO SKTEL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011 - 만족은 크고 부담은 대폭 줄였습니다

중구청과의 교류

본교와 중구청이 교류협약을 체결해 정보문화·지역개발·지역환경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과 주민에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교류협약의 내용과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 이제 '열린대학'으로 가자

지역주민에게 교육 기회제공... 학생들에게 취업문 넓혀주는 등 상호 보완 관계 수립

정병조 부총장에게 듣는다



9월부터 본교와 중구청 정보, 문화 교류 실무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에 본교 실무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병조 부총장을 만나 본교의 실무협약 단계와 준비과정을 들어보았다.

-중구청과 '정보·문화' 등의 교류 협약을 추진한 취지와 의의는.

=21세기가 머지 않았다. 이제 대학도 외부와의 차단막을 걷어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대학사회가 지나왔던 지성의 문화들을 지역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에 환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열린 대학으로 가는 진정한 시발점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대학은 엘리트 집단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이로써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교의 봉사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교가 교류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중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관공도 심의 위원회가 있다. 중소기업에는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위원회에는 교수들을 학술전문인으로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교 학생들의 취업대책 마련과 교수들의 학술교류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안다.

-현재 업무는 얼마나 진행됐나.

=본교 담당 부서의 중구 담당 부서간 업무를 협의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교류하는 단계이다.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확실한 계획은 10월 이후 나올 것으로 안다.

-실제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10월 이후 실무내용이 나오면 현재 실현 가능한 일들은 즉각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예상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경제적 후원이 필요한 일들은 98년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실시될 것이다.

-학내에서 중구청과 교류협정으로 학내 면학분위기가 훼손의 우려가 높은데.

=학생들 내에서 학교 공간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줄 안다. 그러나 학교측도 나름대로 공간문제를 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중구청은 지역주민들이 컴퓨터로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대출받는 수준이나, 공휴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운영장을 사용하는 정도의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은 미연에 방지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나 학교 주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미나 몇몇이었던 이제 우리는 동국 이기주의로 막아왔던 대외적 창구들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 지역과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열린교육은 열린 시각이 필수조건이다. 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면 학생들이 나중에 중년의 나이를 먹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지금은 학생신분에 유리한 사고보다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요건들을 생각할 때이다.

이태훈 기자

최진 기자



지난 7월 31일 본교(총장=송석구·철학)와 중구청(청장=김동일)의 정보·문화 교류 협정 조인식이 있었다.

당초 9월부터 개방하기로 한 도서관·박물관 개방은 다소 늦춰 졌지만, 현재 세부 협정에 관한 양측의 실무 협의가 순조로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본교에는 실무협약 추진을 위해 각 처장과 과장급 인사들로 실무기획단과 실무협약단을 구성했으며 정병조(국민윤리학) 부총장이 위원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구체적인 실무 협약을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교와 중구청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본교는 '열린 교육'이라는 체제 구축과 대외 봉사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통해 학교발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세부 기구안 수립과 의견 조정을 해 내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중구청과의 교류에 따른 실무협약이 있는 뒤 31일 교류 협약서에 조인한 두 단체는 지난 8일부터 본교 기초실과 중구 정적 담당관실 사이의 실무협약이 진행되어 지난 26일까지는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 및 구체적인 내용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무협약의 내용은 다음 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추진 사업은 △정보문화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우선 정보문화의 교류를 위해 본교 도서관과 박물관을 중구민에게 개방한다. 중구민들에게 주민열람증을 발급해 도서관을 열람케 하며, 관의대출은 검토중이며 중구청 직원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도서관과 중구내 마을 문고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통합목록도 발전하게 된다.

지역개발을 위해 중구청은 각종 위원회, 자문회 등에 본교 전문 교수를 위촉해 중구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이밖에 지역환경과 주민 복지를 위해 대형도시 지원봉사인원으로 본교학생을 활용하여 봉사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용을 위해 본교 자원봉사단과 독거노인 결연 및 소년 가장 결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본교 한의대생들의 지역주민 무료 순회진료활동과 부속 한방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도 고려중이다.

지역민의 교육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민과 구청의 요구시 본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며,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법당을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중구청 협약과 관련해 기획조정실 실장 임기중(국어국문학) 교수는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장으로서 본교의 열린 교육이라는 취지를 볼 때 중구청과의 협약은 대학의 사회 환원이라는 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일산 3캠퍼스도 산·관·학(기업·국가·학교) 협동으로 건립된다고 볼 때 일산이라는 지역의 대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일산 캠퍼스도 점차 지역대학으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약의 성공여부가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번 협약 시행의 성공 여부는 본교가 지역 대학의 위상을 세우면서 본교가 복되고 있는 3대 명문사학으로 가는 길을 더욱 빠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중구청과의 협약으로 진정한 지역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Canon CC printer. Features include: '카트리지가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한다!', '실속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210SP',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까지 갖췄다!', '창작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4300'. Includes Canon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otte Canon.

책소개

각해일문

"내가 착하게 하면 남도 착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미워하면 남도 미워하는 것이다"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일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용성 선사의 생활의 가르침을 담은 한편의 책. 불광출판부, 정가-12,000



방송읽기

"그저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보았던 일선 프로듀서로, 또 방송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체험과 출어하는 자료들을 한데 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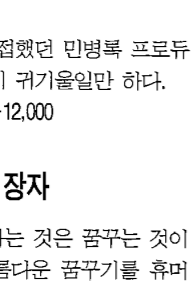
한국방송공사에서 13년 방송현장을 접했던 민병복 프로듀서가 말하는 방송읽기 귀기울일만 하다. 도서출판 우신, 정가-12,000



21세기에 태어난 장자

"삶은 꿈이요,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꿈꾸기를 휴머니스트는 영원히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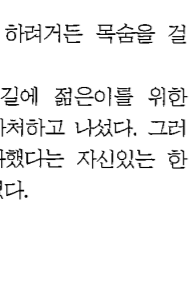
휴머니즘을 필두로한 밀레니엄 전환기의 운동론, 인간적인 고민을 인간과 나누고 싶다는 이형용씨의 바람이 담겨있다. 도서출판 태양, 정가-8,000



돈벌이의 벤처창업스쿨

"창업하지마라! - 허려거든 목숨을 걸 어라"

도박같은 창업의 길에 젊은이를 위한 벤처창업 가이드로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가지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있는 한마디를 머리말에 실었다. 네오, 정가-8,000



바로잡습니다.

1229호 책소개 중 이상현 교수(경향 행정학)의 소년비행학의 정가를 8,000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18,000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교 용어에 화두(話頭)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소설의 제목으로 등장할 만큼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원래는 선종(禪宗)에서 종사(宗師)가 후진들의 깨침을 돕기 위해 부과하는 과제, 곧 공안(公案)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공종의 화두 같은 것은 없을까? 만일 그러한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구가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궁구하거나 다루어 탐 울리는 일들이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이 너와 나 쌍방의 공존을 위한 화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나와 내 가족이 관련된 일에는 자신의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도 나를 뛰어 넘는 일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외면해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지성인 사회를 표방하는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쉽게 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

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대학은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강의실 안팎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교정 여기 저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학습 활동에 불편을 준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다중의 위력에 기대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대학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일은 없었는지. 자리아타(自利利他)라고 했는가. 자신의 삶과 깨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삶과 깨침도 소중한, 다른 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아가 봉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

달하나 건강에

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참 의미의 삶의 질 높이기 아니겠는가. 내친 김에 보탠다면 내 삶의 질 향상은 타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종속 변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나와 우리만을 위해 답답해 하고 머리를 쓰는 일은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이제 다른 사람 - 아니 나의 - 삶 향상을 위해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를 푸는 첫번째 수순일 것이다.



김무봉 문과대 한국어문학부교수

극예술 연구회의 '청, 우리들의 청'을 보고 '호녀 심청은 악한 본성의 희생양'

질곡·수난의 역사 살다간 한 여인의 생 조명



한 여자의 특별한 생애가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한 줄의 문구가 스쳐가는 이들의 시선을 잡아끌어 연극포스터에 고정시킨다. '청, 우리들의 청'이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 것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

목에서 보여지듯 그 여인은 우리가 초등 학교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어른들을 통해, 텔레비전 만화를 통해, 동화를 통해, 수없이 이름을 들었던 심청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졌던 여인, 효의 대표적 인물로 우리에게 각인돼 있는 심청은 1997년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던져주려 하는가?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효(孝)'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연출자 조진용(전 자공)군은 '청, 우리들의 청'에서 청은 인간 본성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순수한 한 여인을 질곡과 수난의 역사로 내몰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발이 이 연극의 주제라는 것이다. 연극의 발단은 걸로보는 딸을 보낸 슬픔에 몸 둘 바를 모르지만 속으로는 딸을 팔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심봉사의 감춰진 본성에서 시작한다. 이는 청과 심봉사를 숙인 채 청을 일본 위안부로 팔아 넘긴 백덕여미의 본성과 연결되는데 또한

이 백덕여미의 본성은 위안부를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위안부를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외는 매파와 결탁된다. 몇 단계 사람들을 걸친 감춰진 악한 본성은 일본 군인과 해적의 성육에서 기어이 표출된다.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순수함으로 대표됐던 청을 육체와 정신이 폐쇄된 정신의 상자로 전락시킨다. 결국 청은 자신이 몸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미친 할아버지 손가락질 당하고, 안타깝게 지켜보던 저승사자는 청을 데려간다. 이 상에서 살펴 본 이 글의 줄거리는 호녀심청을 상상하는 관객에게는 당혹스러움을,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보았던 이들에게는 가장 아마추어적인 실험정신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연극 속에서 청의 고통은 눈먼 흠이 버지 밑에서 가사를 도맡아하는 소녀 가장의 고통이기도 하고 남성중심의 사회를 사는 여성의 고통이기도 하며 역사의 굴



위안부 시절, 청과 그녀를 돕기위해 희생한 사자가 만나는모습

레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어찌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의 고통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세가지 고통을 감당하기에 청은 너무 순수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청은 성폭력을 행사하던 군인과 해적을 왕자로, 병어리에 다리병신인 김서방을 아름다운 왕자로, 자신을 팔려가도록 만든 세상을 용공

으로 포장해야만 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에 청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도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저주가 아닌, 그렇게 살아간 청에 비해 스스로는 인도해도 좋은 카타르시스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진기

"인권 영화제는 '불법 영화제' 일 수밖에 없다" 사전심의제도 거부하며 인권문제 담은 영상 선보여

제 2 회 인권영화제 - 서울 The 2nd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회의 인권의식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인권의식을 고양시켜 '인권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권영화제는 시민들에게 완전 무료로 공개된다. 기금마련을 하려보면 영화제 본래의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현재 영화제는 2백여명의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영화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와 같은 것은 또

있다.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측의 상영작품 사전심의 거부로 인한 행정당국의 압력으로 장소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교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개막 한달전에 취소되었고, 다시 명동성당과 기독교 연합회관을 선정하였으나 불발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영화제 홍보를 담당하는 최은씨는 "사전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불법영화제' 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전심의제를 거부한 채

인권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다큐멘터리보다 극영화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지난 해와 다른 점이다. 4명의 집행위원이 예술적 완성도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기술적 측면(화면상태), 한국관객 예상호응도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상영시간이 무려 9시간 반이나 되는 클로드 랑즈만 감독의 '쇼아'이다. '쇼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

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전 나치스 친위대원들의 증언 인터뷰 다큐멘터리로 엮은 작품으로 1,2회로 나눠 2번째 상영된다. "인권영화제는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치열한 '운동'이다"라고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이렇듯 올해도 두 번째를 맞는 인권영화제는 '단순한' 영화제이기를 거부한다. '인권을 위한 영상'을 찾아 인권에 대한 희망을 싹 틔울 것이다. 경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영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 판유리, 편유리, 유리섬유, 유리장섬유, 결정화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경질유리, 실란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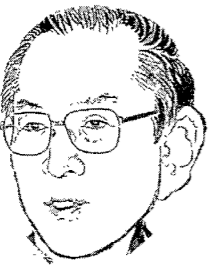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대선후보 시리즈 ①

이회창

△이사람은 회장이 넘도록 정신을 못차리니 참창한 나날을 밖에 동양화나 그려라. △이회창 때문에 허수경이 갑자기 유학을 간대요..... △꼭 당선되세요. 면제자에게 희망을! △귀향간 이들은 언제오려나? △박찬호가 안가는 방법은 이회창 양자로... △대쪽이 쪽났네. 그래도 끝까지 선전하기를... △정치초년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인제

△'인제' 마! 됐다! 그나마 당근이제... △경선불복이라니 민주주의를 알로보라! △이사람이 인제 정신종 차려라 △이런 사람도 있었는가 갑자기 웬 출마. △인제가 없다니까 이상한 인제가 나오네... △나도 과대에서 떨어졌는데 불복할까? △인심을 왜곡한 경선은 민주주의를 논한 자격이 없다. △사대적 부류가 아니라 개인적 욕심이겠지? △이인제는 제2의 박찬종인가? 그가 누리는 인기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대들은 원세대인가 신세대인가? 신세대들이여 인제를 마워줘라 따사다. △인제는 인재의 전성시대-강원도 인재군 출신 일동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경선에 승복안하면 흑시 대선도?)



오수길

성중훈 (연극영화과 3학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연출자 만나 세계 문화흐름 실천하는 연극인 되고파

"연극은 과학적이다. 작은 것에서 큰 틀을 얻어 그것을 취사선택해 관객의 마음에 와닿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중훈(연영3)군. 지난 여름방학내내 그는 구슬땀을 흘리며 한편의 연극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결실을 지난 13일에 맺었다. 한국 대학연극과 외국대학 연극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세계 연극의 흐름과 미래상을 조명한 세계 대학연극 축

제가 바로 그 결실이다. 본교 연극영상 학부는 최인훈 작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세계 대학연극축제 무대에 올렸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는 남성 권력의 잔인성과 정신대 여성의 비극성을 상시켜 역사적식을 고취시키는 작품으로 성중훈군은 이 연극의 연출을 담당했다. 그는 "연출은 작품 해석과 더불어 작품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반적 책임

을 지는데 여기에 학생 연출자의 역할은 교육자 기능이 첨가되어 책임자결 선행"이라며 "이번 작품은 기간이 짧아 작품해석도 안된 상태에서 내만의 생각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다. 또한 그는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의 연기는 흥내내가 아니라 기본 훈련이 잘되어 소리, 몸짓, 정서 등의 여유가 한껏 느껴졌다"며 한국의 연극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만 '흥내내기 연극'이



아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참다운 연극'이 나온다고 덧붙인다. 연극의 매력, 인생의 좌우명에 대한 질문에 그는 "흥난다"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쓴다.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는 상태가 '흥난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며 "인생을 기쁘고 풀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며 그는 아직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한편 '무식무취'한 예에서 순수한 느낌이 전해진다. 담배를 피워도 되나

며 '도라지'를 꺼내는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가 아니라 불리는 본 기자에게 "This는 담배에서 화학냄새가 나는 데 도라지는 구수해요"라고 말한다.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가 '21세기 동양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실천할 수 있는 연극인이 되길 기대한다.

청소년 연극제 모교방문 인연의 소중함 느껴

지난 76년 2월 25일 졸업식날 교정을 떠난 지 21년, 나를 아껴주었던 교수님을 찾아뵙러 한두번 모교를 찾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게을러서 모교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내가 오랜만에 동학의 언덕을 오르는 마음은 실로 감회가 새로웠으며 더욱이 내 아들의 청소년 연극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았던 모교인기에 달란지 모습의 모교와 나 자신의 모습에 짙은 감동을 얻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우리 가족은 동국대학교 교교 91주년 기념 청소년 연극제의 초창 개막 공연에 참여 예정인 장남 재우이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으면서 스물 한 살의 딸 지영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빠가 대학살 때 아이들이 모교인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무대에서 공연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라는 말을 들은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 가족 학교 등과 맺고 있는 인연의 소중함에 새삼 신비로움까지 느끼게 했다. 달라진 나의 모습! 대학살일 때 평범한 청년이었던 나는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1녀2남의 여섯 식구를 부양하는 어엿한 가정이 되어 있다. 우리 가족은 지난 개막식 공연때 학교에 갔던 막내를 제외한 온 가족과 지금은 출가외인인 여동생까지 재우이의 공연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인천에서 원정하여 모교를 찾았으니 가히 대 가족의 원거리 응원단(?)이었던 것 같다.

특히, 내 인생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대학 시절 내가 공부하였던 바로 내 모교의 무대 위에서 내아들이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 그리고 인연의 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축축히 젖어오는 눈시울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누군가 말했다. 관람을 마치고 동학의 언덕을 내려오면서 내가 다닐때보다 훨씬 활기찬 모교와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길 마음 속 깊이 기원한다. 인홍렬(무역76졸·대우자동차 서북지점장)

한총련 수배자 추락사 부검 뒤 의문점 남아

전국이 환한 보름달만 마냥 흥겨움으로 들떠있던 한가위 저녁,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뜻다운 청년이 경찰의 검거과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92년부터 6여년동안 수배생활을 해왔으며 울퉁불퉁한 경찰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아오던 그가 살인적인 검거열풍 속에 그 아까운 목숨

을 잃고간 것이다. 뉴스에서는 도주중 실족사라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절대 단순한 실족사라 아니었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수배자의 검거에 있어서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해놓고 실행에 옮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3층에 있는 수배자를 검거함에 있어 어떠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15일 23시 30분 경찰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미 고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추락시간은 16일 0시 10분경이었다. 경찰측의 발표대로라면 사람이 40분 동안 허공에라도 떠있었다 말인가. 그리고 13층에서 떨어졌는데 추락지점은 흔적이 미미하여 부검결과도 추락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가령 눈주위의 멍과 상처는 떨어져서라기보다 구타의 흔적이 가깝다. 그런 데도 경찰 측은 이를 감추기라도하듯 아 버리게 부검을 요구하고 참관인마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부검을 마치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다. 수배자였기에 정당한 검거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한마디 애도의 말도 도덕적 책임도 회피한 채 그들이 보여준 것은 빈소를 침탈하여 문상객들을 잡아가고 주변을 사복 형사와 전경들

로 막는 파렴치한 것이었다. 이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고 다시 한 번 죽이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작태는 행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적인 수배를 중단하고도 의적 책임을 지며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인의 넋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 않아도될 세상을 그리며 고 김준배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이파란(경상대 경상학부)

대중평으로 학교 변화 학생여론 매체 필요

교육평가는 이들로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각 건물 휴게실이 깔끔해지고 정수기가 설치되고, 분필이 사라지는 등 변화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는 개시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이다. 깔끔하고 정제된 규격을 강조하는 학교답국이 '개시문화 개선안'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여

론 탄압이다. 개시문화의 유인물 부착은 무차별적으로 수거되고 있고 학교에서 제작된 자보용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착이 금지되며 현수막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족한 개시공간의 작은 대안이었던 이동개시판도 소리없이 철거된 지 오래다.

깔끔과 규정만을 강조한 개선안에는 정제된 장소에, 제작된 종이 아니면 학내에서는 어떠한 유인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율을 존중하는 대학 안에서 인정될 수 없는 명백한 여론 탄압인 것이다. 과연 뉴스를 위한 평가인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진정한 교육평가라면 학교의 결속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규정보다는 교육의 3주체(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경주캠퍼스의 학생자치는 타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열악하다. 학생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학생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이며 보여주기식 교육평가 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한 대학종합평가를 위해서라도 학교평정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겠다. 최계은(인문대 국사학과)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10월 3일 독문과 이쁜이 96 원현숙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현숙양보다 더 예쁜 애들이 △9월 25일은 이쁜 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자 -너의 문화대 동지들이 △대불련 지도위원장님 생일축하합니다. 다시한번... 서른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동국대에서 △19대 응원단의 선문대 마지막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썼습니다. -전 19대 응원단 △화군단 백상체전 축구선수 파이팅! -FROM R.G △진불겨울의 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불이의 영원한 친구 △유재오라바니의 가자 복학을 축하하며-은정



다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돈가스(1300) 두부김치(1200)
화 한치회덮밥(1500) 소고기볶음밥(1300)
수 고구마별미밥(1300) 버섯덮밥(1300)
목 양념통닭(1500) 어육이채볶음(1200)
금 개천절 (단위:원)

동국관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콩나물부침(1200) 돈육고추장(1200) 해물탕장찌개(2800) 쇠고기덮밥(3000)
화 비빔밥(1200) 시골우거지국(1300) 삼계탕(3500) 열무비빔밥(2800)
수 탕수육백반(1500) 부대찌개(1200) 어육국(2800) 돌김비빔(3200)
목 짜장면(1200) 설렁탕(1300) 쇠고기전골(3000) 갈비구이(3200)
금 개천절 (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원야 자판기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고했다. -성민 △그리고... 그림 체육대회 행사 수고한 10기 집부들 고생많았습니다. -길쭉이 열심히 합니다 △재목이가 많이 힘들어 해요 재목아 힘내라! -태원이와 효군이 △압살아! 기운내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해. 사랑한다. -울보가 알립니다 △종강파티엔 꼭 참석합니다. 효진이가 불참하다. 김신도도 -하96총색 △10월 12일 영문과 축제 영상제가 있습니다. 많이 와서 보세요. 명진제도(29-10-1) -꽃향 △남산골한마당, 체전, 전야제(10월 1일), 본마당(10월 2일) 많이 오세요. 오후 다섯시에 시작합니다. -13대 02간강좌 총학생회 남산골 한마당 기획단 jyshn 311071-0380 그리고...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명진학술문화 한마당이 열립니다. 명진인들의 참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족하지만 채워가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늘푸른 정준의 살 29대 통일문과대 자주적 학생회 인방글 축하합니다 △법학과 정자영 자영이 축하한다. 콘크리트 레이션 -아름다운 청년이 △도현아 생일 축하한다. H △9월 25일은 구미영의 생일입니다. 미영아 생일 축하해-송미가 △10월 1일, 2일은 기숙사 가을 축제에요 많이 구경하세요. △경상학부 성균아 너100일제 만남 축하한다. -경상대! 97510003 △소영아 생일 축하한다. 연락좀 하고 지내자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지내도록 △10월 3일 불교학생회 18기 대구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010

△10월 8,9,10일 개최하는 'TIME 공개발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임원들 및 회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마니마니 축하해 주세요. -TIME의 데미무어 △노동쟁탈을 향한 역사의 새로운 순환 학생정치연대(준)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잘나가는 기사 △우리동아리 간부님을 축하하며 기획부장-조상운, 홍보부장-임혜주, 총무-김현지, 8기 기장-박현정 열심히 하길 바라며... 헌정! 어서 빨리 회비내도록 -호병맨 수고하셨습니다 △30일 구월의 마지막 정기발표회를 가집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불휘 화이팅!!-18기 △12기들이 수고했다. 특히 용정이 수교과 2명 개국기념식 끝나고 보자. △FMO개국 기념식 준비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11기 △실천하는 용기 제 10대 한의예과 학생회 수고많이 했어요-'96 티즈 그리고... △9월 30일 흥여학생회 문화공연 분반

어머니의 어머니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예쁜학술 △9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교내사거리 고전극 연구회 탈패 가을공연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을 무사히 또 무사히 치르도록 -팔매 △한의예과 문화유산 답사여행 화이팅-한의학과 학우일동 △동문회 18대 회장님과 문화부장님의 합력을 기원하며...한글 회식 잘 했습니다. -H 알립니다 △MTB자전거 란다. 연락은 018-224-7225 △동대에서 가장 잘나가는 동아리 여러 학우님들이 가장 아껴주는 동아리 "소리창고"가 드디어 정기공연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HAM 27일 개국식 합니다. 많이많이 보러 오세요. 12기 진은 친구 더불어 조만간에 앞방공연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보러 오세요.